

5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

2009년 5월 18일

리서치센터

02) 2009-7083

hsjeong@leading.co.kr

제목	주요 내용
유가하락·금융불안에 지표 퇴색	긍정적인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와 에너지주 약세로 미 증시가 반등 하루만에 다시 하락했음.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62.68포인트(0.75%) 하락한 8,268.64로 마감했고, S&P500 지수는 10.19포인트(1.14%) 내린 882.88로 장을 마쳐 주간 5% 하락률을 보였음. 나스닥 지수 역시 9.07포인트(0.54%) 떨어진 1,680.14를 기록했음.
지표, 일제히 개선	미국의 4월 산업생산은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감소했음.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는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.5% 줄었다고 이날 밝혔고,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.6% 감소보다 양호한 수치임. 뉴욕주 연방은행은 이날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-4.55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달의 -14.65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일 뿐 아니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-12.00보다도 훨씬 양호한 수치임.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도 8개월래 최고치를 나타냈음.
재무부, 보험사에 TARP 지원키로...금융 주 약세	미국 재무부가 하트포드, 프루덴셜 파이낸셜,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, 링컨 내셔널 코프, 알스테이트 코프, 프린서펄 파이낸셜 등 6개 보험사들에 대해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(TARP)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. TARP 자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하트포드와 링컨은 각각 0.1%, 1.91% 하락했고, 구제자금이 필요없다고 밝힌 아메리프라이스는 1.36% 올랐음. 프루덴셜 역시 구제자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주가는 4.11% 떨어졌음.
유로존 경기 악화...유 로 급락	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38분 현재 달러/유로 환율은 전날에 비해 1.46센트(1.06%) 하락(달러가치 상승)한 1.3494달러를 기록했음. 달러/파운드환율도 0.38% 하락했음. 이날 발표된 1분기 유로존 16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전 분기 보다 2.5% 떨어졌다고 밝혔음.

제목	주요 내용
4월 수입물가 급락..환율 하락 효과	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(원화기준)는 전월비 7.8% 하락. 이같은 하락세는 1998년 4월 9.1% 떨어진 이후 최대폭.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입물가가 급속도로 안정된 것은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. 수입물가는 지난 2월 3.9%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3월에도 1.3% 상승했지만, 지난달 세달만에 큰 폭 하락세로 돌아섰음.
올들어 97억불 무역흑자..`불황형 흑자`	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77% 수준인 1,155억달러, 누적 수입액은 전년대비 66% 수준인 1,058억달러에 그쳐 총 무역흑자는 97억달러를 기록.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시설투자가 부진한 탓에 원자재·자본재 수입이 급감.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1.1%, 28.4% 감소했음.
8조 담배로 태우고 6조 술로 마셔	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의 담배에 대한 지출액(명목)은 8조 1,670억원으로 전년 7조 8,591억원에 비해 3.9% 늘어났음. 이는 지난해 의료·보건 지출액 32조 3,775억원의 4분의1(25.2%)에 이르는 규모. 담배 지출액은 2000년 5조 3,553억원이었으나 2003년 6조 3,035억원, 2004년 6조 6,313억원, 2005년 7조 315억원, 2006년 7조 4,9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유로존 채권 수익률 4년만에 美 역전	유럽 중앙은행(ECB)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보다 양적완화정책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익률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. 블룸버그통신은 18일 메릴린치의 국채 수익률 집계를 인용, 미 국채 수익률은 올해 3% 하락한 반면, 유럽 국채 수익률은 1.1% 상승.
日3대은행, 보유주식 손실 1.3조엔	17일 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UFJ파이낸셜, 미즈호파이낸셜, 스미토모미쓰이 등 3대 은행이 1조엔 이상의 보유주식 손실을 입은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규모의 3배. 은행별로는 미쓰비시UFJ파이낸셜은 5,700억엔, 미즈호파이낸셜과 스미토모미쓰이는 각각 5,100억엔, 2,200억엔을 손실을 기록.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